

아닌 밤중에

개인의
완전한 자유는
애초부터
신화속의 유토피아일
뿐이었다.

극단새벽의 연극정신은
변혁을 향한
자기성찰을 기초로 하는
인간에 대한
사랑의 실천입니다.







